254개국 누비는 78개 기업들 "미래 개척"

세계 최대 시장 美·유럽 진출 활발 제약바이오협회 전방위 지원 주효 올해 일동제약 등 대거 'CIC' 입주 스위스선 유럽 진출 인프라 구축도

연초부터 제약바이오업계가 해외시장 진출과 현지 연구·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주시장의 핵심 전초기지가 될 보스턴 클러스터에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국내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대거 진출을 준비 중이다. 스위스 바젤에는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

●보스턴·바젤에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최근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은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로 사업영역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78개기업이 254개 국가에 현지법인, 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양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주와 유럽진출에 만은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미국시장 진출의 경우 핵심 거점 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 터는 전 세계 100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 이 입주해 7만4000개 이상 일자리와 약 2조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산업단지다.

우리나라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축이 되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미 국 진출을 위해 보스턴 캠브리지 이노베 이션센터(CIC) 입주를 전방위적으로 지 원해 왔다. 현지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구성해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 했고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미국 의약품 시장 분석 등을 주제로 미국 관계자의 온라인 세미나도 열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LG화학, GC녹십 인 제약바이오 강국이다. 국내 업계는 등과 네자, 삼양홀딩스, 유한양행이 먼저 보스 스위스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 의약품 턴에 진출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웅 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받는다.



연구에 전념하는 국내 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R&D시설 모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최근 몇 년간 양대 시장인 미주와 유럽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글로벌 무대를 향한 사업 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단위 : 억 원		의약품	시장 규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	생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시장규모	
2014	164,194	25,442	54,952	-29,510	193,704	
2015	169,696	33,348	56,016	-22,668	192,364	
2016	188,061	36,209	65,404	-29, 195	217,256	
2017	203,580	46,025	63,077	-17,052	220,633	
2018	211,054	51,431	71,552	-20,121	231,175	
2019	223,132	60,581	80,549	-19,968	243,100	
2020	243,662	99,648	85,708	13,940	231,722	

계획이다.

이터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월

24일 스위스 바젤 투자청과 헬스케어 엑

셀러레이터 바젤론치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바젤론치는 주정부가 제약사,

스타트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네트워크 기회 및 사업 자문 등의 폭넓

은 지원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엑셀러레

이번에 바젤 투자청과 맺은 파트너십

협약은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

특화된 지원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 유한양행, 일

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5개 사가 참

여해 3년 동안 글로벌제약사·바이오텍

등과 네트워킹 지원, 원료의약품・완제

의약품 바이어 물색 지원 등의 혜택을

제약, 웰트, 팜캐드, 한미약품이 협회 지원으로 CIC에 입주했다. 올해는 JW중외제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일동제약, 삼일제약 등이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 2~3개 기업들이 추가로 CIC 입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월 25일에는 한국제약 바이오협회가 보스턴 총영사관,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등과 국내 기업들의 보스 턴 바이오클러스터 진출을 위한 민관 협 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럽시장은 스위스의 산업도시 바젤이 국내 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스위스는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강국이다. 국내 업계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작 지축을 가소하하다는

●美·日 등 제약바이오 파격 지원

한편 각국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국가 R&D예산 총액의 23%를 제약 바이오 분야에집중했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재정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미국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에 20조 원을 초고속으로 지원해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도 2015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의료연구개발기 구(AMED)를 설립해 각 부처에 분산되 어 있던 의약품 R&D 예산과 연구관리 기능을 통합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는 제약바이오에 국가 R&D 예산 중 무려 40%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R&D 인력의 원천징수세 및 특허세 80%를 면제하는 혜택을제공해 내수(14조)의 4배에 가까운 52조 원대 의약품 수출을 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치열한 글로 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외 국가의 지원 못지않은 범정부차원 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신년 기 자간담회에서 정부에 대해 대통령 직속 전주기 육성·지원 컨트롤타워인 제약바 이오혁신위원회 설치, 현 14.6%인 정부 의 R&D 예산 지원을 30% 이상으로 확 대하고 정부 주도 5조 원 메가펀드 조 성, 백신주권·제약주권 확보를 위해 백 신바이오펀드 조성과 백신가격 현실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종합지 워대책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부의 과감한 육성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약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며 "올해는 그동안의 역량 강화와 에너지 축적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강력하고 단단한 추진동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광동제약, 제주 한정 '비타500 광도르방' 출시



광동제약은 비타500의 첫 지역 에디션 '비타500 광도르방'(사진)을 출시했 다.

'비타500 광도르방'은 비타500에 지역 특산물 등

을 결합한 제주도 스페셜 에디션으로 제주도에서만 판 매한다. 제주도의 상징인 돌하르방의 모양과 질감을 디 자인에 적용했으며, 제품 라벨에 한라산과 제주해녀 등 지역 이미지 요소와 제주의 청정해역을 상징하는 청록 색을 더했다. 제주산 감귤 농축액을 첨가한 제주감귤 맛으로 기존 라인업과 풍미를 차별화했다. 광동제약 관계 자는 "비타500 광도르방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로 편슈머 트렌드를 담아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비타500 광도르방'은 지난해 광동제약과 제주대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의 프로젝트 KD이노베이터에서 최초로 기획됐다. KD이노베이터로 참여한 제주대 학생들이 제출한 신제품 아이디어중 대상 수상작을 제품화했다. 제품은 제주도 내 1290개편의점, 270여 개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주지역 단위농협 27개 판매망을 통해서도 공급된다.

차 의과대 미술치료대학원 '찾아가는 처방전'

차 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은 지난해 코로나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을 진행했다. 미술치료대학원 김태은 교수와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힘들어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위해 온라인 전시 등5주간 미술 심리치료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Art On Mind'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만의 나무'만들기 키트 2000개를 광진구와 순천시, 대구 북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 관련 온라인 미술치료도함께 제공했다.

서울대병원 주도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 출범

서울대 의과대학 메타버스 랩과 서울대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스마트ICT연구실의 공동 후원으로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가 1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확장현실(XR) 및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의학적 장애나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의 학문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학술적, 기술적, 제도적 연구조사를 수행하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산학 협동 활성화를 지원하며 교육연수 사업과 국제적학술교류를 통해 의료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의 틀을 다질 계획이다.

양방향 척추내시경. 흉터·통증 적고 회복 빨라

건강올레길 ㅣ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생활형 질환이 되어버린 척추질환은 일 상생활에서의 상당한 불편함과 통증을 호 소하기 때문에 서둘러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힘들고 재발의 위험성도 있어 안전하고,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척추 수술은 환부가 잘 보이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절개 부위가 컸던 만큼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컸고, 상처와 재활 등 회복이 오래 걸렸다. 때문에 고령 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컸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이런 환자들에게 정상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비수술적 척 추 치료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5mm의 작 은 구멍 두 개를 내어 한쪽에는 초고화질 내시경 카메라를,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를 삽입해 협착된 부위를 넓혀주고 돌출된 디 스크를 제거한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병변을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어 정 확도를 높였다.

미세한 절개로 시술해 출혈이 거의 없고 부분 마취여서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하다. 흉터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과 안정성으로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현

재 최소 침습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등 대부분의 척추질환에 적용 된다.

주사,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연세고든병원 **최현민** 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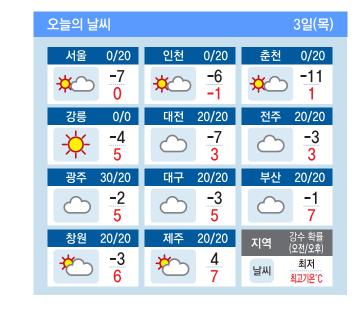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3일 (목) 음력: 1월 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屋**別 호랑이 호랑이 행운색:청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청색 행운색:검정 용 쥐 뱀 소 길방:북 길방:북 길방:동 길방:남 길방:남 길방:동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 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 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 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 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 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 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 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 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 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 한다.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 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 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 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 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야 한다. 절치부심 준비해온 자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 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 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속내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결과에 대 는 의외의 횡재수도 있다. 복권 면 큰 재난이 온다. 새로운 도약 과 문서를 조심하라. 망신일에 엇보다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 보이나 실속은 있는 날이다. 한 보상을 받는 날이다. 당첨이나 유산상속의 운이다. 의 계기가 될 것이다. 는 실수를 자주한다. 여 활동하면서 번다. ****** 개 **ি** ও 행운색:노랑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흰색 행운색:검정 생물 돼지 원숭이 길방:남 길방:남 길방:서 길방:중앙 길방:북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띠와의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 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 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들었던 화초 가비를 만나는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기다려야 할 때이다. 앞서거나서두르지 말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 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 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 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 게 밀고 나아가라. 잘못되면 금 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노력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u> </u>					제3757호				
발행인·편집약	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	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	안도영 양형모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정재우 고종철	엔터테인! 인쇄		이정연 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	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	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	10 제보·!	투고 02-361-	1616 sc	ol@donga.	com			